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2020년 공동 성경 읽기를 이번 주로 끝마칩니다(고린도후서 9장-13,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유다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각 선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교회학교는 올 성탄 축하 잔치를 계획하기 바람에 뜻있는 성탄 맛이를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오늘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찬양, 기도, 안건 토의).
- 11월 2일(월)부터 11월 22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 다음 주 예배 후 인도자 성경공부가 느헤미야실에서 있습니다(3시 10분, 제3권 2과 예습).
- 본당과 연결된 공간을 주일날만 아동부 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활용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새 가족 환영회가 오는 28일 (토)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섬겨 주실 성도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유튜브에 이단이나 사이버 단체들의 성경공부와 강의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단을 분별하는 11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1월교회사역일지

11월 2일 (월)
다니엘 기도회
11월 8일 (주일)
인도자 공부
11월 28일 (토)
새 가족 환영회
11월 29일 (주일)
대림절 1

11월 기도 순서

11월 8일 (주일)
이정인 집사
11월 11일 (수)
다니엘 기도회
11월 15일 (주일)
김교섭 장로
11월 18일 (수)
다니엘 기도회

11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이기중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44호 2020.11.01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17:1-2	인도자
✧찬 송	21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68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	손조훈 집사
성 경 봉 독	창세기 15:1-7	인도자
찬양대찬양	반석 위에 서리	나무삼자가찬양대
설 교	설득하시는 하나님	이태한 목사
찬 송	304장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310장 (1,4절)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11월 2일 ~ 11월 22일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오후 7시에 본당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금 주 기 도
조주찬 형제
다음 주 일
채다운 자매

이번 주는 베트남 이지양 선교사 소식입니다.

온 지구가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어려움과 고통으로 무너짐을 보며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과 일상이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뿐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언제나 눈물과 한숨이 그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계절을 따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낮의 밝음도, 한밤의 어둠도, 삶도 죽음도 모두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방황하는 이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 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참으로 낮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삶 앞에서 우리들은 상황과 환경이 요동치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인간의 생각과 약함에 갇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싫어 버린바 된 남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왕과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들과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자유와 번영과 축복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현지 교회들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장학 사역과 기숙사 사역 그리고 사랑의 집 짓기와 교회마다 추석 전도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시고 부르신 것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이 귀한 선교 사명 현장에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값으려고 달려갑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화도 납니다. 때로는 배반도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보통 사역지에 오고 가는데 10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베트남은 때아닌 태풍으로 중부 지역 수재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 저와 아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영육이 강건하도록.
- 현지 교회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으로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2020년 10월 25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다니엘의 세가지 감사기도> 다니엘 6:10

핸드폰이나 은행 계좌를 사용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하듯 성경에는 이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모든 문제를 푸는 비밀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살전 5:18, 엡 5:20)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다시 100:4).


감사가 인생의 비밀 열쇠인 것을 알았던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다니엘은 위험한 현실을 감사로 극복했습니다: 포로 신세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를 범안으로 올렸습니다. 이 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죽는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30일만 기도를 쉬거나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했습니다.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의 힘든 문제조차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때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할 때 성령님께서 진흙탕 속의 진주를 보게 하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 다니엘과 같은 감사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다니엘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변함없는 사실 앞에서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대로(딤후 4:7-8)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와 예배와 감사의 영성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런 훈련이 있어야만 다니엘처럼 죽는다고 해도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으며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다니엘은 일상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세 번 감사 기도 드린 것은 모든 일상을 기도 드린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던(시 55:17) 다윗과 같이 일상의 기도가 있었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았으며 보호와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주겠다" (렘 33:3) 약속하셨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 없는 다니엘은 상황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올려 드린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화가 됩니다. 구원 얻은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은혜와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모든 것에 감사드릴 때 또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셨으니 그대로 행한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스펠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함이 연장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문제의 만능열쇠인 감사로 형통하고 복된 갈보리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